中國語文學 第73輯(2016. 12) 381-405쪽

朝鮮 初期 歸化 中國語 通譯官 硏究*

- ≪朝鮮王朝實錄≫의 記錄을 中心으로 -

박 종 연**

<目 次>

Ⅰ. 서 론
Ⅱ. 朝鮮 初期 歸化 通譯官 養成의 時代 背景과 類型
1. 朝鮮 初期 歸化 通譯官 養成의 時代 背景
2. 朝鮮 初期 歸化 中國人 通譯官의 現況
3. 歸化 中國人의 類型
Ⅲ. 朝鮮 初期 代表的 歸化 中國語 通譯官
Ⅳ. 결 론

Ⅰ. 서 론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는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다. 각 시대마다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꾸준히 발전했고, 중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학계에서는 "韓中 交流史"라는 주제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귀화한 중국인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학계에서도 이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中國語 通譯史를 연구하는 중에 ≪朝鮮王朝實錄≫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중국학부 부교수

www.kci.go.kr

(이하 ≪實錄≫으로 표기함)에 기록된 귀화 중국인 통역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朝鮮은 開國을 전후로 明나라와의 외교·정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太祖 2년에 통역 양성기관인 司譯院을 設立했고, 통역관을 양성하는 漢語訓導로 귀화 중국인을 임명했다. 필자는 通譯史的인 관점에서 당시에 활동했던 중국인 통역관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귀화 후에 통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인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적 의미로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을 '華僑'라고 부른다.[1] 華僑의 사전적 의미는 '외국에서 정착하여 사는 중국사람'을 가리키지만, ≪實錄≫에서는 중국에서 이주해온 사람을 가리켜서 '歸化'人 또는 '投化' 人, '向化'人, '向國'人이라고 불렀다. 귀화한 중국인을 인재로 활용한 기록은 ≪實錄≫ 뿐 아니라 중국의 歷史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宋史≫에 高麗가 의도적으로 중국에서 온 인재들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벼슬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北宋의 周濴이 송나라 商船을 따라 高麗에 들어왔는데 관직이 禮部尙書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는 해상무역이 발전했기 때문에 상업을 통해 高麗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宋史≫ 권487, 外國3 '高麗'에 보면 고려 수도였던 開京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福建省으로부터 수백 명의 중국인이 들어왔으며, 그들 중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아서 벼슬을 주고 머물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2]

1) 일반적으로 화교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주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것은 대한제국 말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화교는 中華의 華와 교거[객지 생활] 또는 교우[임시 거주]의 僑가 합쳐진 약칭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화교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98년 일본의 요코하마에 살던 중국 상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학교명을 "화교 학교"라고 칭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디지털군산문화대전에서 인용)

2) 有華人數百, 多閩人因賈舶至者. 密試其所能, 誘以祿仕, 或留, 強之終身.(林堅, ≪延邊大學學報≫(사회과학판) 제42권 제2기, 〈朝鮮半島的中國移民歷史考察〉, 2009.4. 35쪽.)

www.kci.go.kr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귀화 중국인 통역관들은 주로 조선 초기에 귀화하여 중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의 발전을 촉진시켰다.[3]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귀화 중국인들은 명나라와의 정치, 경제적 교류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었던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존재였다.[4]

鄭光은 조선시대 譯學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역사에서 조선조와 같이 외교 통역관을 양성하는 국가 기관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한 예는 극히 드물다. 물론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나, 언어가 다른 異民族과의 접촉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기록되었고 또 간간이 통역에 관한 언급도 찾을 수 있으나 근대 이전에 司譯院과 같은 관청을 설치해 이민족 언어의 통역을 전담하는 관리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성한 나라는 별로 많지 않다. 따라서 司譯院 제도와 그에 관련한 여러 역사적 사실은 우리 민족사의 서술에서 매우 특정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5]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시 중국어 통역관 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司譯院에 적지 않은 중국인이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존 학계 연구에서는 그들에 대한 고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바탕으로, ≪高麗史≫, ≪明太祖實錄≫ 등의 역사서와 중국 학계의 기존 조선과 명나라와의 關係史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조선 초기 중국어 통역과 관련된 중국인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조선 초기 귀화한 중국인이

3) 일부 偰長壽와 같은 통역관은 고려 말에 귀화했는데, 조선 초기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 포함시켜 서술했다.

4)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의 조선 이주는 중국의 앞선 문화를 한반도에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조선 초기 易姓革命을 통해 정권을 잡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의 정치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류가 필수적이었으며, 귀화한 중국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5) 정광,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김영사, 2014. 79-80쪽.

www.kci.go.kr

우리나라의 중국어 通譯史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朝鮮 初期 歸化 通譯官 養成의 時代 背景과 類型

1. 朝鮮 初期 歸化 通譯官 養成의 時代 背景

高麗와 朝鮮의 왕조 교체 시기는 元明의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東北亞 지역은 매우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政治 地形學的으로 강대국에 인접한 국가들은 항상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국어 通譯史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외부적 영향, 즉 당시 주변 강대국인 명나라와의 관계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당시 朝鮮이 왜 建國 초기에 통역관 양성기관인 司譯院을 만들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중국어 통역을 중시하게 되었는가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귀화 중국인에 대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선 초기의 政治·經濟·言語的 背景을 중심으로 귀화 중국인 통역관이 필요했던 이유와 귀화 중국인의 유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朱元璋은 명나라를 세우고 기존과는 다른 '朝貢'이라는 방식의 宗藩關係를 구축했다.[6] 명나라는 武力으로 조선과의 관계를 갖기보다는 우호적인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事大外交의 강화를 통해 안정을 도모하며, 양국 간 정치적 蜜月期를 가졌다. 조선 왕조의 건립 후, 李成桂의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실제 양국의 관계는 부단히 정치·군사적 矛盾과 衝突을 반복했다. 명나라 건국 초기에 중국 대륙에는 아직도 원나라의 세력들이 동북 지역에 위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한반도에는 원나라를 지지하던 고려가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었다.

6) 張光宇, 〈明代漢民移民朝鮮問題研究〉, 中國海洋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www.kci.go.kr

조선 초기에 생겼던 명나라와의 마찰은 근본적으로는 정치·외교적인 사안이었지만, 명나라는 사신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구실로 삼아 불만을 표출했다. 따라서 일련의 외교 문서 사건과 사신들의 언어 부족 문제 등의 해결사로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다.

명나라의 朱元璋은 개국과 동시에 이전까지 자유롭게 성행하던 海上貿易을 즉각 금지시키고 강력한 海禁政策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존에 私貿易을 통해 대량으로 조선에 가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왕래의 제한을 받았고,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인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양국간의 무역 형태가 자유로운 私貿易에서 官方貿易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양상이 출현했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해상교류가 육로로 바꾸면서 요동지역에서 통상을 하게 되고, 조정에서 명나라로 파견하는 사신단을 통해서만 무역이 가능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무역 거래에 필요한 통역 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복잡한 정치·경제적인 배경 이외에도 조선이 중국어 통역관을 양성해야 했던 언어적 배경이 있다. 사실상 정치 경제적 배경과 언어적 배경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지만 필자는 언어와 관련된 사건을 따로 언어적 배경으로 구분했다. 陳輝의 주장에 따르면 朱元璋은 高麗에 대한 질책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使臣과 通事의 중국어 능력을 비판했다고 한다. 고려에 대한 정상적인 朝貢을 거절하고 王權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신의 파견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언어 소통의 문제로 곤란에 부딪쳤다. 다음은 고려의 사신으로 온 偰長壽와 朱元璋의 대화이다.

> 지난번 하급 통역관이 몇몇 왔었으나, 내가 어디 털어놓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대 偰長壽는 故家의 자손이니, 여기에 왔던 다른 재상들과 다르다. 너는 나의 말을 알고 나도 너의 말을 알기에 이 말을 그에게 하노니, 너는 나의 생각을 재상들에게 알려 그들이 성의를 다하도록 하고 얕은 재주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라.[7]

www.kci.go.kr

朱元璋과 고려의 귀화 통역관 偰長壽의 대화에서, 朱元璋은 偰長壽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 온 사신들에게 제대로 중국어로 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역을 전담하는 通事들의 중국어 수준이 떨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8] 이와 유사한 상황은 ≪朝鮮太祖實錄總序≫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 京師에 이르니 天子가 평소부터 李穡의 명망을 듣고 있었으므로 조용히 말하기를, "그대가 元나라에 벼슬하여 翰林이 되었었으니 응당 중국말을 알 것이다"하니, 李穡이 갑자기 중국말로써 대답하기를, "왕이 친히 조회하기를 청합니다"하매, 천자가 이해하지 못하여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였느냐?"하므로, 禮部의 관원이 전하여 이 말을 아뢰었다. 李穡이 오랫동안 중국에 들어와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말이 자못 어려워 통하지 아니하니, 천자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하는 중국어가 마치 納哈出과 같다"고 하였다.[9]

牧隱 李穡이 누구인가? 원나라 國子監의 生員으로 유학을 했으며, 원나라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그는 대략 8년 정도를 중국에서 생활했고, 朱元璋도 그의 학문적 명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1388년 門下左侍中이었던 李穡이 賀正正司로 朱元璋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주원장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중국말 하는 것이 원나라 장수였던 納哈出와 같다"는 핀잔을 들었다. 李穡이 朱元璋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

7) 先番幾箇通事小廝每來, 那裏說的明白? 你却是故家子孫, 不比別箇來的宰相每. 你的言語我知道, 我的言語你知道, 以此說與你, 你把我這意思對管事宰相每說, 大槩則要至誠, 倒不要許多小計量.(≪高麗史≫ 권136, 열전 권49, 禑王 13년 5월)

8) 陳輝, 〈朱元璋的"中原"觀及其對漢語的影響〉, ≪浙江大學學報≫ 제42권 제5기, 2012.9.

9) 從容語曰. 汝仕元爲翰林. 應解漢語. 穡遽以漢語對曰. 請親朝. 天子未曉曰. 說甚麼. 禮部官傳奏之. 穡久不入朝. 語頗艱澁. 天子笑曰. 汝之漢語. 正似納哈出. (태조실록 1권, 총서 95번째 기사)

www.kci.go.kr

한 것은 朱元璋이 지금의 安徽省 鳳陽縣 출신으로 사투리가 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황제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일은 양국 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偰長壽와 李穡의 경우에서 보면 朱元璋은 偰長壽 일가를 이용하여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를 체결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위의 만남이 있고 난 후에도 偰氏 일가는 여러 차례 명나라를 방문했고 양국 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조선이 개국되고서도 마찬가지였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나라와의 외교적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귀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상호 왕래 중에 발생하는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집 잡히지 않을 수준의 문장력과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관을 양성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太祖 2년에 바로 "司譯院을 설치하고, 중국어를 익히게 했다."[10]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없는 일로써, 문서의 경우 귀화한 중국인들이 윤색을 가했으며, 중국어 통역의 경우 귀화한 중국인을 사신과 동행시키거나 司譯院에서 역관을 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통역관의 양성은 국가적인 업무로, 상당한 시간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통역관은 명나라와의 정치 경제적 교류에 필요한 충분한 언어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했고, 수적으로도 매우 부족했다. 일반적으로 통역관은 중앙에서 사신을 수행하여 통역을 하거나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지방에서도 중국어 통역관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세종 15년 황해도 감사가 지방에도 譯學院을 설치하여 중국말을 아는 자로 사신을 영접케 할 것을 건의한 기록이 있다.

황해도 감사가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사신이 잇따라 왕래하는데, 그들

10) "置司譯院, 肄習華言."(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19일 신유 1번째 기사)

www.kci.go.kr

> 이 도내 州縣의 站路를 통과할 때마다 그들을 지공하고 접대하는 데에 동원되는 軍民은 적어도 수백 명은 됩니다. 모두가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의 通事나 평안도의 譯學院 學生이 와서 통역해 주기를 기다린 뒤라야 비로소 사신의 의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체되거나 지나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두목이 혹은 通事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譯站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비록 많으나, 응답이 없으면 혹은 아전과 백성을 매로 치기도 하고, 혹은 執事者를 능욕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온 도내의 사람들이 중국말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11]

이처럼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필요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訓導가 턱없이 부족했으므로 중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국인은 당연히 중시를 받았을 것이다.

2. 朝鮮 初期 歸化 中國人 通譯官의 現況

麗末鮮初 시기에 중국 내부의 왕조교체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귀화해 왔다. 그들을 지칭하는 用語와 관련해서 ≪高麗史≫에는 '歸化'라는 말 대신에 '来投'나 '来奔', '投化'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우리나라에 이주한 중국인을 '投化人'이나 '向化人'으로 불렀다.[12] 그 외에 '向國人'이라는 명칭은 ≪實錄≫에 단지 세 차례만 사용되었다. 1406년 한 번, 1416년에 두 번으로, 太宗 때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태종 6년에 중국으로 몰래 건너가던 중 海禪을 合浦에서 乃而浦로 이배하는 문제를 의논한 기록에서 "……向國人姜教化와 더불어 東北面 事變을 몰래 말하였

11) 黃海道監司啓: "朝廷使臣絡繹往來, 每過州縣站路, 支待軍民, 少不下數百人, 皆不識漢語, 必待京通事與平安道譯學生傳譯, 然後乃知使臣志趣, 不無遲滯過擧之弊. 其間頭目或不待通事, 先入站舍, 語言雖多, 無有應對, 則或鞭韃吏民, 或陵辱執事者. 以一道人民, 未達語音之故."(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9일 무자 3번째 기사)

12) ≪高麗史節要≫ 권5, 문종 11년 기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秋七月, 命有司試宋投化人張琬所業遁甲三奇法六壬占, 授太史監候." 여기서는 "投化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www.kci.go.kr

다. …"고 했다.[13]

귀화인을 발탁해서 인재로 등용한 것은 역사 기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언어에 능통한 인재가 부족한 현실에서 외교 분야에 통역관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14] ≪實錄≫ 세종 16년의 기록에 의하면 예조에서 승문원 제조와 더불어 譯語人, 즉 통역관에 대한 격려 권장책을 협의하여 세종에게 아뢴 것이 있다. 그 중에 "漢語訓導에 司正 徐士英과 張顯 등을 추가 임명할 것이며,……"라고 했는데, 여기에 언급된 徐士英과 張顯은 원래 중국인이었다고 했다.[15] 기록에서 보듯이 조선이 귀화 중국인을 활용해 통역관을 양성한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적인 의도 뿐만 아니라, 명나라와의 무역에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實錄≫ 세종 21년(1439)에도 귀화인 중에서 인재를 적극 등용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 의정부에서 병조의 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서울 밖에 항상 살고 있는 向化人의 자손들이 귀화한 것이 오래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비록 원래 귀화해 온 사람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모두 向化子孫으로 일컬으며, 本曹에 서로 원래 귀화해 온 향화인이라면 멀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두 試才하게 하오니, 실로 미편하옵니다……."[16]

---

13) "……又與安置向國人姜敎化, 潛說東北面事變."(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4일 임신 1번째 기사)

14) ≪高麗史≫를 보더라도 송나라에서 고려로 귀화한 중국인 때문에 양국 간에 외교적 문제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있었지만. 고려의 입장에서는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귀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조선 초기까지 유지되었다.

15) 禮曹與承文院提調, 同議啓譯語人勸勵之策: "一. 漢語訓導, 加差司正徐士英、張顯等. ……士英與顯, 本唐人也."(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4일 임오 4번째 기사)

16) 議政府據兵曹呈啓: "京外恒居向化人子孫等不計向化久近, 雖元來人之子孫, 竝稱向化子孫. 本曹亦元係向化則不計親疎, 竝試才, 實爲未便.……."(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29일 병자 1번째 기사)

www.kci.go.kr

당시 귀화인에 대해서는 그 귀화시기에 관계없이 등용해서 쓸 정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어 통역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전 시기와는 달리 통역이 필요했을까? 세조 6년 5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를 통해 왜 귀화 중국인들을 활용해서 통역관들을 담당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송나라와 원나라시대까지는 신라와 고려의 자제들을 중국에 보내어 학교에 입학시켜 학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외국어 통역관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韓昉·李原弼·洪楫·偰長壽 등과 같은 귀화한 중국인들이 잇달아 중국어 교육을 담당했으나, 세조 때에는 이러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17]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 93권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고려에서는 漢語都監과 司譯尙書房을 설치하고 오로지 華語를 익히게 하여, 그때에는 漢人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르는 자가 매우 많았고, 國初에 이르러서는 司譯院을 설치하고 龐和·荊華·洪楫·唐城·曹正 등이 서로 계승하여 가르쳤으므로, 이로 인하여 친히 배우고 익히게 되어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18]

司譯院에서 중국어를 지도하는 역할을 했던 漢語訓導의 정원이 4명인 것을 감안하다면 대부분의 訓導는 귀화 중국인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태는 조선 중기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외국어 교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조정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1730년 11월 25일 우의정 趙文命이 英祖

17) 臣謹按自漢·唐至宋·元朝代, 新羅·高麗皆遣子弟入學肄業. 其後漢人韓昉·李原弼·洪楫·偰長壽等相繼出來, 訓誨子弟, 上項等人俱已淪沒, 如今傳習無由.(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11일 병술 1번째 기사)

18) 高麗設漢語都監及司譯尙書房, 專習華語, 其時漢人來寓本國者甚多. 至國初, 置司譯院, 如龐和、荊華、洪揖、唐城、曹正等相繼訓誨. 由是親炙習業, 人才輩出.(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8월 11일 을해 3번째 기사)

www.kci.go.kr

에게 아뢴 내용이다.

> 저들과 우리나라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譯官에게만 의지해 왔는데, 근래에 漢語는 거의 씨가 끊어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개 漢學偶語廳은 바로 故 相臣 閔鼎重이 창설한 것이므로, 漢人인 鄭先甲·文可相을 訓長으로 삼아 生徒를 가르치게 했던 까닭으로, 그때에는 아주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의 通譯하는 무리 중에서 한어를 잘하는 자들도 또한 支流입니다. 지금은 우어청의 그 이름만 있고 실효는 없습니다. 대저 권장하는 길은 반드시 賞典이 있어야 격려 권장할 수가 있는데, 祿稟도 없고 따라서 遞兒職도 우어청에 미치는 일이 없습니다.[19]

시기적으로 볼 때 조선 초기의 상황은 아니지만, 조선 전반에 걸쳐 통역관의 부족현상은 변함없이 계속 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實錄≫기록은 조선 초기에 譯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당시 통역관의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귀화 중국인들이 중국어 통역관으로 활동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예조판서 申商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事大하는데 있어서 譯學보다 더 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司譯院의 生徒들은 다만 語訓만 익히고 文理를 알지 못하여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나 우리나라의 사신이 명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통역이 잘못되어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20]

申商은 여러 차례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예조판서로

19) "彼我國交際, 專賴象舌, 而近來漢語幾乎絶種. 蓋漢學偶語廳, 卽故相臣閔鼎重所創設, 而以漢人 鄭先甲·文可相, 定爲訓長, 課習生徒, 故其時大有成效. 卽今譯輩中, 善爲漢語者, 亦其支流矣. 今則偶語廳, 徒有其名, 無其實效. 大抵勸奬之道, 必有賞格, 可以激勸, 而旣無祿稟, 又無遞兒之及於偶語廳."(영조실록 28권, 영조 6년 11월 25일 경인 1번째 기사)

20) 禮曹判書申商啓: "我國事大, 莫重譯學, 今司譯院生徒, 但習語訓, 不曉文理, 接待上國使臣及我國使臣入朝之日, 傳譯舛訛,以致譏笑."(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6일 기유 1번째 기사)

www.kci.go.kr

서 명나라 사신을 맞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譯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통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통역관의 수준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통역관의 양성을 주장했다.

3. 歸化 中國人의 類型

≪實錄≫에 사용된 '唐人'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中國人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 '唐人'과 관련된 기록은 대부분 元末부터 流落, 逃亡, 포로로 잡혀오거나 바다에서 遭難을 당해 조선으로 흘러 들어와 살게 된 중국인과 관련이 있다.[21] 이런 의미에서 보면 '唐人'은 조선 국내의 僑民의 속성을 띠고 있지만, 단순하게 현대적 의미의 '華僑'와는 차이가 있다.[22] 본 절에서는 중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한 중국인들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귀화 중국인의 類型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조선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신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다. 귀화한 인원에 비해 ≪實錄≫에 기록된 그들의 행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그들이 조선에 거주하면서 명나라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조선 초기 귀화할 당시 중국인들의 신분을 중심으로 귀화 유형을 분석했다.

1) 戰亂으로 인한 流民

명나라의 건국 초기는 중국 내 政勢가 불안하고 동북쪽에 남아 있던 원

21) ≪高麗史≫에서는 단지 3차례만 사용되었다. ≪實錄≫에 나타난 "唐人"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태종 5년(1405) 2월 2일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중국인 戴延卿과 鄭自良 등 13명에게 쌀 한 섬 씩을 하사하였다(賜唐人戴延卿、鄭自良等十三人各米一石)." 왕조 별로 기록된 횟수를 살펴보면 세종실록에 140회로 가장 많이 보인다.

22) 張燕霞, 〈朝鮮初期(1392~1450年)對於"唐人"的安置與遣返問題研究〉,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14쪽.

www.kci.go.kr

나라의 잔류 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는 중국인 유민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朱元璋이 海禁政策을 실시했기 때문에 조선과 명나라의 무역이 이전에 비해 거의 중단된 상태였고, 近海에서 고기를 잡던 어민이나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유민들이 조선으로 온 경우도 있었다.

≪實錄≫에 보면 "遼東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들을 江原道와 東北面에 나누어 두었다. ……기묘년 이후에 우리나라로 도망해 온 사람들을 下三道 각 고을로 安置하고, 양식을 주었다"[23]는 기록이 있다. 명나라 유민에 대한 조선의 태도는 그들이 조선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양식과 거주지를 제공할 정도로 매우 우호적이었다. 물론 명나라 조정은 조선으로 이주해 간 유민들을 돌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조정에서 부득이하게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민들 찾아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1403년 4월부터 1408년 9월까지만 보더라도 조선은 모두 9차례 5,439명의 중국 流民과 散漫軍을 遼東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24]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인구가 곧 노동력이자, 경제력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歷史書에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조선에 남겨서 안주하도록 허락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25]

2) 捕虜

포로가 되어 조선으로 귀화한 경우는 주로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고려 말 포로가 되어 잡혀온 경우, 둘째는 왜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가 조선으로 온 경우, 셋째는 여진족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조선으로 온 경우이다.

14세기 후반 元明 교체기의 혼란기에 명나라의 세력이 遼東지역을 완전

23) "分置遼東逃來人等於江原道及東北面.……安置己卯年以後向國逃來人於下三道各州, 給糧."(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4일 丁酉 1번째 기사)
24) 楊昭全·孫玉梅, ≪中國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79쪽 참조.
25) 楊昭全·何彤梅, ≪中國-朝鮮·韓國關係史≫, 天津人民出版社, 2001, 535쪽 참조.

www.kci.go.kr

히 장악하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고려는 중국 국경 내에서 많은 중국인들을 포로로 잡아왔다. 그러나 명나라가 안정되자 1379년 군대를 파견하여 고려군이 사로잡은 遼陽 지역의 관민 남녀 1,000여 명과 각 衛의 군인 등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26]

왜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쳐온 대표적인 예가 葉官生이다. 唐人 葉官生은 태종 때(1406) 왜에게 포로 되었다가 도망쳐 金海에 와 있었다. 永樂 11년(1413)에 나라에서 그를 京師로 보내고자 했으나, 官生이 원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위협하며 말했다. "軍器別軍 17인은 모두가 前日에 漫散軍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西北·豐海 兩道에 나와 같은 사람이 매우 많은데, 만약 京師로 돌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고하여 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태종은 명나라 조정의 질책이 두려워 그를 머무르도록 했다.[27] 이 기록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매우 많다고 말한 것을 볼 때, 당시 일본에 잡혀갔다가 조선에 거주하던 중국인 포로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實錄≫의 통계에 따르면, 1392년부터 1452년까지 60년 동안 여진족의 포로가 되었다가 중국으로 송환된 중국인이 83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아마도 史料의 통계가 정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량으로 한반도에 유입된 포로 중에서, 분명 숨거나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28]

26) "洪武三年十一月, 高麗軍所虜, 遼陽官民男婦千餘人及各衛軍人, 逃往彼處者, 悉發解送."(≪高麗史≫ 권134, 열전 권47, 禑王 5년 1월)

27) 唐人葉官生嘗於永樂四年, 爲倭所擄, 逃至金海, 至是, 國家將送于京師, 官生不欲曰: "軍器別軍十七人, 皆前日漫散軍也. 非獨此也, 西北豐海兩道如予者頗多. 予若還京, 則必告無遺矣." 政府以聞, 遂寢.(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월 27일 정미 1번째 기사)

28) 張光宇, 〈明代漢民移民朝鮮問題研究〉, 中國海洋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23쪽.

www.kci.go.kr

3) 文人

명나라 때 조선으로 이주한 文人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원말 명초에 난을 피해 조선으로 왔거나,[29] 왜구나 여진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나와 조선에 머물면서 벼슬을 한 사람들이다. 원말 고려에 피난 온 문인은 일반적으로 역시 명나라 移民으로 볼 수 있다. 그들 중의 일부는 등용이 되어 조선 왕조에 벼슬을 했다. 예를 들어 唐誠은 浙江 明州 사람으로, 원나라 말기에 병란을 피해 동쪽으로 왔으며, 조선 시기에 恭安府尹을 역임했고, 1413년에 세상을 떠났다.[30] 그에 관한 이야기는 太宗 4년 인재등용과 행정원의 하부 이양 등을 건의한 司憲府의 상소문에 언급되어 있다.

> ……應奉司에서는 한 나라의 문서를 맡으므로 그 학문하는 선비가 모두 다 속하지만, 漢語 吏文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唐誠만이 맡고 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사고라도 있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직임을 마련하여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글을 짓거나 쓰는 선비 가운데 총명하고 博學하며 技藝가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미리 吏文을 익히도록 하여, 다른 날의 쓰임에 대비할 것입니다.[31]

위에서 언급된 '應奉司'는 '文書應奉司'라고 하며, 承文院의 前身으로 외교문서를 담당하다가 1411년에 承文院으로 개칭했다. ≪實錄≫의 기록을 보면 당시 唐誠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그가 吏文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도 韓昉

29) 원말에 전란을 겪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고려는 마치 이상향의 피난처와 같았다. 비록 이주한 유학자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학술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30) "浙江明州人, 元季避亂東來", "歷仕中外, 通曉律令, 遇事敢言"(≪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31) 應奉司, 掌一國文書, 其學文之士, 悉皆屬焉, 至於漢吏之文, 獨唐誠掌之. 若一朝有故, 則不學之人, 難辦其任. 願自今, 擇文翰之士聰明博學果藝者, 預習吏文, 以備他日之用.(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20일 기축 1번째 기사)

www.kci.go.kr

과 李原弼은 元末에 高麗로 귀화하여 조선의 조정에서 중국어 통역관을 양성하고, 漢語를 가르쳤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주해온 사람, 특히 문인들로부터 더욱 앞선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遭難을 당했거나 왜의 포로로 잡혀갔던 중국인들은 명나라로 돌려보냈지만, 문인이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잔류시켜 중국어 통역관의 임무를 맡겼다.

Ⅲ. 朝鮮 初期 代表的 歸化 中國語 通譯官

2장에서 麗末鮮初에 귀화한 다양한 부류의 중국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史料에 나타난 것을 보면 朝鮮의 朝廷은 단기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 이외에, 문화적인 수준을 갖고 있거나 기술 방면에 장점을 갖고 있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분야에 우대 정책을 실시했으며, 필요에 따라 관직을 주어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시기 귀화한 사람들 중에서 중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으로 귀화하여 벼슬을 한 계급은 주로 명나라의 文人이었다. 시기적으로는 대부분 元末明初의 정권 교체 시기였으며, 그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당시 귀화한 중국인 통역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앞에서 언급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활동한 偰長壽와 그 일가가 있다. 학계에서도 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高麗後期의 譯官〉(이정신)[32], 〈麗末 鮮初 偰長壽의 政治活動과 現實認識〉(백옥경)[33] 등이 있으며, 본 장에서는 偰長壽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겠다. 그를 제외하

32) 이정신, 〈高麗後期의 譯官〉, ≪韓國中世史硏究≫ 통권 제38호, 2014.4, 373-403쪽.

33) 백옥경, 〈麗末 鮮初 偰長壽의 政治活動과 現實認識〉, ≪朝鮮時代史學報≫ 46, 2008, 5-40쪽.

www.kci.go.kr

고 조선 초기 ≪實錄≫에 언급된 대표적인 귀화 중국인 통역관인 李相, 徐士英, 張顯, 曹崇德 등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實錄≫에 귀화 통역관 '李相'과 관련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세종 23년 8월 22일(1441) 병술 두 번째 기사이다. 함길도 도절제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女眞 金毛多가 漢人 李相을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삼았사온데, 신이 李相과 말하여 보니 대강 經書를 알고 吏文을 익혔으므로, 곧 營中에 머물러 두었습니다. 만약 綿布 30필을 준다면 그를 살 수 있겠나이다"라고 했다.[34] 조선 초기에는 보통 漢人이 포로가 되면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전례였다. 그러나 李相의 경우는 야인의 포로가 된 상태로, 조정에서는 그를 두고서 돈으로 사서 나라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李相처럼 經書를 알고 外交文書까지 익숙한 인재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세종 23년 10월 22일 을유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이조 참판 成念祖를 북경에 보내 명년 설을 賀禮하게 하면서, 李相을 조선에 머물러 두기를 요청했다. 그 奏本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議政府의 狀啓에 함길도 절제사 李世衡에 따르면 '被虜되어 있던 李相이라는 남자 한 명을 잡아 보냈는데, 내력을 물어보니 遼東 鐵嶺衛 군인이었습니다. 正統 2년 9월 일에 脫輪衛 야인에게 포로가 되어, 여러 차례 팔려서 종이 되었다가, 변경까지 이르러 이번에 붙잡혀 오게 되었다'고 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국은 동방에 窮僻하게 있고, 말의 소리가 중국과 서로 달라서,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지만 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에 元朝의 末期에 漢南 사람 韓昉·李原弼 등의 무리가 피란해 나와서 생도들을 가르쳐 대국을 섬기는 임무를 삼가 갖추었습니다. 그 뒤에 본인들이 잇따라 죽어 가르칠 사람이 없으므로, 漢音을 학습함에 있어서 점점 그릇됨이 있어, 혹 宣諭하는 聖旨를 밝게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을까 두려우며, 조정의 사신이 본국에 이르러서 대화하는 말을 이해하는 자도 적사오매 대단

34) "女眞金毛多虜漢人李相爲奴. 臣與相語, 粗知經書, 習吏文, 仍留營中. 若給緜布三十匹, 則可得買之."(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8월 22일 병술 2번째 기사)

www.kci.go.kr

> 히 불편하옵니다. 다행히 지금 李相이 글을 대강 알고, 漢音이 순수하고 올바르므로, 머물러 두고 말을 傳習하기에 합당하옵니다"라고 하니, 신이 이에 의거하여 상세히 관찰하여, 李相이 中國의 軍丁으로, 奏達하여 머물러 두고 音訓을 質正함이 마땅하옵기에, 이를 삼가 갖추어서 아뢰옵니다.35)

귀화한 李相에게 관례에 따라 조정에서는 의복과 신과 갓을 하사하였고, 吏文을 배우는 生徒와 講習生들에게 매일 李相을 찾아가 배우도록 했다. 승문원제조는 세종에게 "吏文을 배우는 生徒 중에서 文理에 밝게 통하는 자를 골라 매일 李相의 곳에 내왕하면서 ≪至正條格≫과 ≪大元通制≫ 등을 배우게 하고, 본원 관원 두세 명을 차례로 내왕하면서 吏文을 질문하게 하고, 또 講習生 여섯 사람으로 하여금 내왕하면서 글을 읽게 하소서"라고 건의했다.36) 여기에서 언급된 ≪至正條格≫는 원나라 말기에 편찬된 법률 서적으로, 중국에서는 오래 전에 소실된 책이다. 2002년 경주 孫氏 宗家에서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이 책이 吏文 교재로 활용되어 각종 외교 문서를 작성하고 형사법을 만드는데 활용되었다. 특히 譯科의 주요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었던 이 책은, 승문원 관리라면 반드시 학습해야 했기 때문에, 생도와 강습생에게 직접 李相의 집에 가서 배우도록 했던 것이다.

李相 이외에도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야인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도망쳐 나온 중국인 徐士英과 張顯이 귀화하여 漢語訓導로 중국어

35) 議政府狀啓: "據咸吉道都節制使李世衡: '捉解到被擄男子一名李相, 問係遼東鐵嶺衛軍人. 於正統二年九月日, 被脫輪衛 野人虜掠, 輾轉賣訖爲奴, 到來邊境, 今次被捉前來.' 得此. 竊照, 本國僻在東陲, 語音與中國殊異, 必資通譯, 乃能傳命. 在先元朝之季, 漢南人韓昉、李原弼等輩, 避地出來, 訓誨生徒, 謹備事大之任. 其後本人相繼淪沒, 無有教訓之者, 漢音傳習, 漸致差訛, 慮恐倘有宣諭聖旨, 難以曉解; 朝廷使臣到國, 應對言語理會者小, 深爲未便. 幸今李相粗識文字, 漢音純正, 擬合存留, 傳習相應." 臣據此參詳, 所有李相上國軍丁, 理宜奏達存留, 質正音訓. 爲此謹具奏聞.(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2일 을유 1번째 기사)

36) 承文院提調等啓: "擇吏文生徒文理通曉者, 每日來往李相處, 學≪至正條格≫·≪大元通制≫等書. 本院官員二三人輪次來往, 質問吏文, 又令講肄生六人來往讀書." (세종실록 94권, 23년 신유 11월 6일 기해 2번째 기사)

www.kci.go.kr

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 9년 4월 16일(1427년) 갑술 다섯 번째 기사에 徐士英, 張顯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함길도 도절제사가 올린 장계에,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온 중국사람 徐士英이 와서 말하는데, 徐士英은 원래 開原城 밖 5리쯤 되는 곳에 거주했고, 사촌형 張顯과 함께 글방에서 글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童猛哥帖木兒에게 함께 잡혀 阿木河에 끌려와서 종이 되었다가, 張顯은 먼저 도망하여 吉州에 왔고, 士英도 역시 고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이 나라 백성이 되려고 왔으니, 서울로 보내 주거나 혹은 原籍地로 돌려보내 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37] 또 같은 해 ≪實錄≫의 6월 9일 병인 기록에도 그들의 행적이 나온다. 원문에는 '徐仕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용을 보면 아마도 '徐士英'과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

>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해 온 중국사람 徐仕英이 말하기를, "일찍이 開元에 살았으나 본래 원근간의 족친도 없으니, 성심으로 이 나라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정부에 내리어 의논하기를 명하였더니, 좌의정 黃喜·우의정 孟思誠 등이 의논하기를, "仕英이 吉州에 이르러서 먼저 들어와 사는 중국사람 張顯의 아들을 만나 보아 이미 顯이 벼슬을 받아 司譯院에 근무하고 있음을 아는지라, 仕英만을 제 나라로 풀어 보내기는 미편한 일이고, 또 그가 한문 글자를 조금 알므로 앞으로 소용될 만한 사람이오니, 자원에 의하여 머물러 두는 것이 편의하겠나이다."…[38]

두 기록을 보면 徐士英의 사촌형인 張顯이 먼저 조선으로 귀화하여 司譯院에서 漢語訓導로 근무하고 있었고, 徐士英도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지

37) "被虜逃來漢人徐士英來言: '士英原住開原城外五里之地, 與從兄張顯讀書鄕學. 還家時, 同被童猛哥帖木兒擄掠, 到阿木河, 爲奴使喚. 張顯比先逃來吉州, 士英亦不勝艱苦, 投化而來. 請送王京, 或還原籍."(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4월 16일 갑술 5번째 기사)

38) 被擄逃來漢人徐仕英言: "曾住開元, 本無遠近族親, 誠願留住." 命下議之. 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等議: "仕英到吉州, 見先來漢人 張顯子息, 已知顯受職, 留仕司譯院, 獨解送仕英未便. 又稍解文字, 將爲可用, 依自願留之爲便."(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9일 병인 3번째 기사)

www.kci.go.kr

않고 조선에 머물면서 漢語訓導로서 중국어를 가르쳤다. 세종 16년 1월 4일 禮曹에서 승문원 제조와 더불어 譯語人에 대한 격려 권장책을 합동 협의하고 아뢰기를, “漢語訓導에 司正 徐士英과 張顯 등을 추가 임명할 것이며, ……”[39]라고 했다. 漢語訓導는 司譯院의 正九品 관직으로 漢學生徒에게 漢語를 가르치는 직책이었다.

끝으로 工曹參議를 지낸 曹崇德은 원래 중국사람 曹証의 아들로, 우리나라 과거에 급제하여 吏文에 능하고 중국어도 통달했다고 한다.[40] 주로 事大文書를 管掌했고, ≪實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태종 16년 7월(1416)이다. 당시 承文院 校理로 중국에서 떠들어온 사람을 遼東으로 돌려보내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 후 세종 즉위년(1418)에 書狀官으로 北京에 간 적이 있으며, 세종 3년에는 여러 차례 포로를 호송하여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또한 세종 3년 11월 24일 기사에 “判承文院事 曹崇德을 불러 ≪大學語錄≫을 강연하도록 했다. 崇德은 중국 본토의 音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세종으로부터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41] ≪實錄≫1423년 세종 5년 12월 23일 기사에 摠制 元閔生과 判承文院事 曹崇德으로 하여금 鑄字所에서 중국어로 번역한 책을 읽도록 했다고 한다.

Ⅳ. 결론

1992년 한중 수교가 시작된 이래로 양국의 인적 교류가 2014년에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처럼 양국의 교류는 오랜 역사를 두

39) 漢語訓導, 加差司正徐士英、張顯等.(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4일 임오 4번째 기사)

40) 賜故工曹參議曺崇德喪賻紙六十卷. 崇德, 中國人証之子也. 本國科第出身, 能吏文, 通華語.(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12일 무인 2번째 기사)

41) 又召判承文院事曺崇德, 講≪大學語錄≫. 崇德, 知漢音者也.(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4일 계미 1번째 기사)

www.kci.go.kr

고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은 양국의 교류에 있어서 특히 기존에 연구가 되지 않았던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로 귀화한 중국인 통역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麗末鮮初는 양국 모두 왕조 교체시기로 동북아 지역이 매우 복잡한 정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의 정치적 영향을 받았던 현실 속에서 조선 초기는 명나라와의 정치·경제·언어적인 배경과 관련되어 귀화 중국인 통역관이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초기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는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충돌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명나라의 강력한 私貿易 금지조치와 海上貿易의 금지로 국가 주도의 朝貢貿易을 해야 했다. 이러한 양국의 갈등은 조선의 통역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어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언어에 능통한 통역관을 양성해야 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통역관을 양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귀화한 중국인을 인재로 등용할 수 밖에 없었다.

≪實錄≫의 기록을 통해 조선 초기 귀화인 중국인의 유형을 분류하면, 명나라 내부의 전란으로 인해 한반도로 귀화한 流民과 포로가 되어 조선으로 온 중국인, 文人 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들 중에서 특히 文人 계층은 수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司譯院의 漢語訓導로 활동하면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 초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귀화 중국인 통역관 중에서 李相은 문인이면서 군인으로 있다가 여진족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돈으로 사서 통역관으로 활용한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그 이외에도 역시 포로로 잡혀왔다가 司譯院 漢語訓導가 되었던 徐士英과 張顯이 있다. 또 曹崇德은 중국사람 曹証의 아들로, 과거에 출신하여 吏文에도 밝고, 후에 工曹參議의 벼슬까지 했다. 이처럼 조선 초기 중국어 통역 분야에 활약한 귀화 중국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귀화한 중국인 통역관들의 한계도 보인다. 그것은 偰長壽 등의 일부 귀화 역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접적인 통역보다는 외교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작성법을 지도하는데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향후 필자는 본 논문을 기초로 조선 초기에 명나라로부터 조선으로 귀화하여 활약한 중국인 통역관에 대한 개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략적으로 명나라와 외교적 관계가 민감했던 시기인 조선 초기에 귀화한 중국인들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귀화 중국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名稱의 문제와 귀화한 중국인들의 類型 및 대표적인 중국인 통역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대표적인 귀화 중국인 통역관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통해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고자 한다. ≪實錄≫에 언급된 귀화 중국인 통역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들의 行績을 考察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국어 通譯史 연구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Baek ok-kyoung. “The political Thinking and view of reality of Sol Jangsu from the late Koryo to early Choson”. *(The) Journal of Choson dynasty history朝鮮時代史學報* 46, (2008).
2.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Mingtaizu Shilu.* Shanghai Bookstore Publishing House, 1982.
3. Chen Hui. “Zhu Yuanzhang's Concept of “Zhongyuan” and Its Influence o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42 No5, (2012).
4. Chung Kwang. *Foreign Languages Education in the Joseon Dynasty.* Gimmyoung, 2014.
5. Kong Anguo. *Shangshu(尚書).* Zhonghua Book Company, 2015.
6. Lee Jungshin. “Official Interpreters in the Late Goryeo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eval History* Vol.38, (2014).

www.kci.go.kr

7. Lin Jian. “An Investigation into the Immigration from China to Korean Peninsular”. *Journal of Yanbian University(Social Science)* Vol.42 No2, (2009).
8. Li Nanqiu. *Zhongguo kouyishi.* Qiangdao Publishing company, 2002.
9. Ma Zuyi. *Chinese Translation History.* Hunan Education Publishing House, 2006.
10. Sima Qian. *Shiji(史記).* Zhonghua Book Company, 1982.
11. Tuo Tuo. *Songshu(宋史).* Zhonghua Book Company, 1977.
12. Yang Zhaoquan·Sun Yuhai. *Zhongguo huaqiaoshi.* The Chinese Overseas Publishing company, 1991.
13. Yang Zhaoquan·He Dongmei. *A history of China-Choson·Korea relations.* Tianjinrenminchubanshe, 2001.
12. Zhang Guangyu. *Study on Chinese Han Immigrants to Korea of Ming Dynasty.* Zhongguohai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13. Zhang Yanxia. *Studies on Resettlement and Repatriation of “Tangren” in Early Choson Dynasty(1392~1450),* Shand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Web sit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DB of Korean Classics
[Koryŏsa, Koryŏsajŏryo, Sinjeung Donggukyeojiseungram,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Gunsan

<참고문헌>

1. 백옥경, 〈麗末 鮮初 偰長壽의 政治活動과 現實認識〉, ≪朝鮮時代史學

www.kci.go.kr

報≫ 46, 2008.
2. 臺灣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校勘, ≪明太祖實錄≫, 上海書店, 1982.
3. 陳輝, 〈朱元璋的"中原"觀及其對漢語的影響〉, ≪浙江大學學報≫ 제42권 제5기, 2012. 9.
4. 정광,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김영사, 2014.
5. 孔安國, ≪尚書≫, 中華書局, 2015.
6. 이정신, 〈高麗後期의 譯官〉, ≪韓國中世史研究≫ 통권 제38호, 2014.
7. 林堅, 〈朝鮮半島的中國移民歷史考察〉, ≪延邊大學學報≫(사회과학판) 제42권 제2기, 2009.
8. 黎難秋 主編, ≪中國口譯史≫, 青島出版社, 2002.
9. 馬祖毅 등 著, ≪中國翻譯通史≫, 湖南教育出版社, 2006.
10.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82.
11. 脫脫, ≪宋史≫, 中華書局, 1977.
12. 楊昭全·孫玉梅, ≪中國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13. 楊昭全·何彤梅, ≪中國-朝鮮·韓國關係史≫, 天津人民出版社, 2001.
14. 張光宇, 〈明代漢民移民朝鮮問題研究〉, 中國海洋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15. 張燕霞, 〈朝鮮初期(1392~1450年)對於"唐人"的安置與遣返問題研究〉,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웹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디지털군산문화대전

<Abstract>

The history says that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have exchanged

www.kci.go.kr

human resources and goods for thousands years. Since the Ming Dynasty and the Joseon Dynasty had a very complicated relationship politically, the Joseon Dynasty had to approval of its legitimacy from the Ming Dynasty which was more powerful than Joseon. Economically, Zhu Yuanzhang(朱元璋), the founder of the Ming Dynasty did not allow seaborne trade with Joseon and forced Joseon to conduct tributary trade upon establishment of his country. Moreover, the lowered level of interpreters from Joseon was raised by Zhu in this background, and in order to cope with the issue from the Ming Dynasty, Joseon started to hire the Chinese who were naturalized as Joseon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ituations of the Chinese interpreters who were naturalized as Joseon citizens based up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other issues such as various kinds of titles, types of interpreters throughout the representative interpreters, Li Xiang (李相), Xu Shiying(徐士英), Zhang Xian(張顯), Zhang Chongde(曹崇德).

Key Words : 통역(Interpretation), 조선(Joseon dynasty), 귀화인(Naturalized person), 역관(Official Interpreters), 통역사(History of Interpretation), 명나라(Ming Dynasty).

www.kci.go.kr

www.kci.go.kr